

서 현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활동 분석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유 수 경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활동 분석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유 수 경

# 인 준 서

유수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별 구분이 가능한 정치활동 관련 삽화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여성의 지위나 교육 여건, 제도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분야, 특히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의 엘리트 수준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정치사회화 과정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화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많다. 이러한 지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특히, 성역할이나 성차별적인 내용은 그 특성상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삽화를 통해 잠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치활동 관련 삽화 중에서 성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정치활동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의 삽화비율은 25.8%, 남성은 74.2%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4종 교과서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 지도층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핵심 엘리트층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8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비율도 여성에 비해 16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익집단에서의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지도층을 묘사한 삽화는 4개 교과서에서 모두 남성으로만 나타났다. 구성원 층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높긴 하

지만 그 차이가 약 1.8배로, 지도층에 비해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의 참여를 살펴보면, 지도층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구성원 층에서는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지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활동적인 참여 형태인 선거운동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투표에서는 여성의 참여 비율이 53.3%로 그 차이가 적긴 하지만 유일하게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력 시위 관련 삽화에서는 정치교과서 4종에서 총 4개의 관련 삽화가 있었으나, 여성이 폭력 시위에 가담하는 삽화는 없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활동 관련 삽화는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정치는 남성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활동을 담은 삽화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 유형은 엘리트 수준의 정치 지도층은 물론이고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지도자 수준에서도 여성의 삽화비율이 낮았다. 반면 투표나 시민단체 구성원 층에서는 여성의 삽화비율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가 평등한 지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삽화들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교과서별로 정치활동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치교과서 모두에서 남성은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삽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소극적인 참여 활동을 나타낸 삽화의 비율이 높았다.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든지 간에 학생들은 암묵적으로 성차별적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더 이상 정치가 남성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성 불평등한 내용들의 수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4
3. 연구의 제한점 .....	5
<b>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b> .....	7
1.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	7
2.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 .....	10
3. 학교의 여성교육과 정치사회화 .....	11
1) 정치사회화의 개념 .....	11
2) 교육과정 속에서의 정치사회화 .....	12
3) 한국 공교육에서의 여성정치교육 현실 .....	13
<b>III. 정치교과서 분석 틀과 분석 방법</b> .....	17
1. 분석대상 .....	17
1) 교과서의 기능 .....	17
2) 삽화의 기능 .....	18
2. 분석준거 .....	22
1) 삽화의 성별 구분 방법 .....	23
2) 정치참여유형의 구분 .....	24
3) 정치활동관련 자료의 분석 .....	26

<b>IV. 정치교과서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b> .....	30
1. 출판사별 분석 삽화의 비중 .....	30
2.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유형 .....	31
1) 인습적 참여 .....	32
2) 비인습적 참여 .....	42
3. 출판사별 정치참여유형 .....	46
4.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	49
<b>V. 결론 및 제언</b> .....	50
1. 분석결과의 요약 .....	50
2. 시사점 및 제언 .....	52

## **참 고 문 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II-1> 각국의 여성의원 의석비율 .....	8
<표 II-2> 인간개발보고서 .....	9
<표 III-1> 분석대상 정치교과서 .....	17
<표 III-2> 정치참여유형별 분석 .....	26
<표 III-3> 출판사별 분석 삽화의 비중 .....	27
<표 III-4>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유형 .....	28
<표 III-5> 출판사별 정치참여유형 분석 .....	29
<표 IV-1> 출판사별 정치활동 자료의 수 .....	30
<표 IV-2> 정치지도층의 여성참여 삽화비율 .....	33
<표 IV-3> 후보자로서의 여성참여 삽화비율 .....	35
<표 IV-4> 이익집단의 여성참여 삽화비율 .....	36
<표 IV-5> 이익집단 여성의 집회참여 삽화비율 .....	37
<표 IV-6> 시민단체의 여성참여 삽화비율 .....	38
<표 IV-7> 시민단체 여성의 집회참여 삽화비율 .....	40
<표 IV-8> 지도자로서 여성참여 삽화비율 .....	41
<표 IV-9> 투표에 참여하는 여성 삽화비율 .....	42
<표 IV-10> 폭력시위에 참여하는 여성 삽화비율 .....	43
<표 IV-11>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비율 .....	45
<표 IV-12> 출판사별 정치참여비율 .....	48



## 그림 목 차

<사진1> 국무회의 .....	34
<사진2> 국회 본회의 .....	34
<사진3> 재판소 모습 .....	34
<사진4> 연설하는 후보자 .....	35
<사진5> 후보자의 모습 .....	35
<사진6> 노사협상 .....	36
<사진7>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 .....	37
<사진8> 연예인 협회 회원들 .....	37
<사진9> 시민연합 .....	39
<사진10>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	39
<사진11> 세계 NGO대회 .....	39
<사진12> 여성단체 회원들 .....	40
<사진13> 대통령 당선 확정애 환호하는 지지자들 .....	41
<사진14> 유권자의 투표 .....	42
<사진15>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 .....	42
<사진16> 폭력시위 .....	43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과거의 남성 위주 가부장적 문화가 무너지고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등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산업의 발달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가 향상됨에 따라 남녀의 엄격한 벽 또한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서만은 여성의 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국회의원이거나 공무원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상위직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지위의 현실을 파악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국제회의연맹(IPU)에서 집계한 각 나라 여성의 의석 비율의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 3월 현재 의회 체도를 지닌 189개국 중 한국은 13.4%로 82위를 차지했다.<sup>1)</sup>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15대 국회에서 3.7%, 16대 국회에서 5.9%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에게 불리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를 꼽을 수 있다. 둘째는 남성중심의 권위적인 정치구조와 정당 구조의 문제점

---

1) <http://www.ipu.org/wmn-e/arc/classif310307.htm>

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여성의 성(性)역할 고착화와 여성의 정치사회화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남성우위의 유교사상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관습이나 사회적 편견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고정관념과 관습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고정된 관념을 바로 잡고 남녀평등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 즉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최정윤, 2006).

특히 여기서 사회과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과 교육의 핵심 영역 중의 하나인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교과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정치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적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히 정치교육은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남녀평등적인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서 지적한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사회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과 교육은 이러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교육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차별적인 성역할에 대한 정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성적 편견을 없애고 평등한 성역할을 심어주기 보다는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성역할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백난희, 1997; 범윤경, 1998; 최정윤, 1999; 김지양, 1999; 오재림, 2004).

이같이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성차별적인 교육은 교과서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주된 실천 자료의 하나로서, 교육과정의 복잡 다양한 교육 목표를 성취하는데 가장 기본적, 중심적, 경제적, 그리고 간편한 교육 자료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입시중심적인 교육현실과 더불어 ‘교과서는 교육과정이다’라고 할 만큼 학교교육에서 교과서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교과서는 그 특성상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역할에 대해 의도되어 나타나는 영향력 외에도 표면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타나는 비의도적 영향력도 갖는다.

교과서 전면에서 드러나는 여러 지식 체계 외에도 삽화나 예화의 내용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경, 2000). 특히 성차별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특성상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잠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삽화를 통해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등 학생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교과서에 글과 함께 실리는 삽화는 글 내용에 대한 흥미 유발과 내용의 이해에 대한 보조 장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교수-학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삽화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면 학습자의 정치 학습과 미래의 정치활동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 실린 정치활동과 관련된 삽화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유형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학교교육을 통한 정치사

회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기는 성적 정체감이 형성됨과 동시에 정치학습과 정치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학생들의 가치와 태도 분야를 다루는 사회과 중에서도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과목에서의 성역할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정치교과서의 삽화 중에서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의 여성정치 참여가 저조한 원인 중 하나가 학교 교육을 통한 정치사회화 과정에 있다고 볼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에 나타난 삽화는 학생들에게 흥미유발은 물론이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참여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정치교과서의 전체 정치활동 삽화 자료의 수(數) 중에서 여성정치활동 성별 구분이 가능한 삽화 자료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둘째, 성별에 따라 정치참여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정치교과서 4종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은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

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지적인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정치사회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요 결과에 주목한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기능과 더불어 교과서에 제시되는 삽화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정치참여유형에 따른 여성의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검인정 4종의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활동 관련 삽화 중 성별 구분이 가능한 삽화 자료를 모두 찾아내어 분석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현행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교과인 정치교과에 한하여 검인정 4종의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정치활동 자료 중에서 성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만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성별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희미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의 정치활동을 크게 5가지 참여유형으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분류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1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부터이다.<sup>2)</sup> 초기의 이러한 참정권은 한국 여성들의 문맹률이라든지 특정 정권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70년대를 거치고 1980년대에 들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의식수준 또한 향상되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활발해졌다. 특히 여성의 문맹은 오랫동안 여성이 평등하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리는 것을 방해해 왔으나 교육수준의 상승은 여성의 사회의식 상승을 가져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이 늘었고 이는 공직참여 등 고위 결정직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대에 들어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이시기의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는 정치자금의 문제와 정당조직의 비민주적 운영 등으로 겨우 구색을 갖추는 정도에서 여성 단체나 정당의 여성 간부들을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를 의무화한 정당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0년 4월에 치러진 제 16대 총선에서 16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되어 여성 국

---

2) 서구의 경우 여성의 참정권은 189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실시된 후 20세기 전반에 와서야 보편화 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여성들은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참정권을 확보하였다.



회의원 비율은 5.9%가 되었으며, 2004년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3.4%로 증가하여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여성의원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민주화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대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처한 정치적 지위의 현실을 파악하는 척도로 IPU(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에서 집계한 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과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조사한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로서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알아보면 다음의 <표 II-1>과 <표 II-2>와 같다.

<표 II-1> 각국의 여성의원 의석비율

순위	국가	점유율(%)
1	Rwanda	48.8
2	Sweden	47.3
3	Finland	42.0
4	Costa Rica	38.6
5	Norway	37.9
49	Canada	20.8
54	United Kingdom	19.7
70	United States of America	16.3
82	Republic of Korea	13.4

출처: <http://www.ipu.org/wmn-e/arc/classif310307.htm>

<표 II-2> 인간개발보고서

국가	인간개발지수 HDI (2004)		남녀평등지수 (GDI)		성별실력지수 (GEM)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Norway	1	0.965	1	0.962	1	0.932
Iceland	2	0.960	2	0.958	3	0.866
Australia	3	0.957	3	0.956	8	0.833
Ireland	4	0.956	4	0.951	17	0.753
Sweden	5	0.950	5	0.949	2	0.883
Singapore	25	0.916	-	-	18	0.707
Korea.Rep.of	26	0.912	26	0.905	53	0.502
Slovenia	27	0.910	24	0.908	32	0.603

※ 출처 : UN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 1) HDI(Human Development Index) : 각국의 교육수준(성인 문자 해독율, 취학율),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 주요 통계를 토대로 인간능력의 개발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 2)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남녀 각각의 교육수준, 평균수명, 소득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남녀 간에 성취 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수
- 3)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 여성의 의회의석 점유율, 관리직·전문직 비율, 소득에 있어서 여성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이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

표 <II-2>에서와 같이 인간개발지수(HDI)는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의거해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은 177개국 중 26위를 기록하였으며, 남녀평등지수(GDI)는 한국이 136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한 성별실력지수(GEM)에서는 75개국 중 53위로 평균에도 미달되었다. 이처럼 성별실력지수(GEM)가 낮은 이유는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강근숙, 2001). 이처럼 <표Ⅱ-1>과 <표Ⅱ-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지도자 수준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 2.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요인으로 선거제도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의 기본은 소선거구제의 단순다수제이다. 하지만 여성의 국회진출에 소선거구제는 심각한 장애로 작용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인 유교의 전통이 강한 경우에 1위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 하에서 여성후보가 선택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오경희, 2003: p.89).

둘째, 정치구조적 요인으로 정당 구조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정당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권자를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있어서 핵심적인 통로가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정당은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적 성격 때문에 대중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제도적 정치와 성 편견 때문에 진정한 참여와 대표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여성의 성역할 고착화와 여성의 정치사회화 부족을 들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 받고 억압 받아왔으며, 이러한 성차별은 고

정적인 성 역할을 만들어 냈다. 또한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의 역할로 인해 시간과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적인 것, 정치적인 것은 남성의 영역이고 여성의 영역은 사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공·사 분리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참여를 자제하도록 동기화되어 온 것이다(강근숙, 2001: p.59).

### 3. 학교의 여성교육과 정치사회화

#### 1) 정치사회화의 개념

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가 속한 사회의 기존 가치체계, 신념, 감정적 태도 및 행동양식 등에 적응해 가면서 성장하여 가며, 이러한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도 정치적 동물이므로 정치생활에 관련되는 가치체계, 신념 및 태도 등도 함께 습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정치사회화라고 일컫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화의 개념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1920년대 이후 사회과학의 발달로 개인의 행동 및 기원에 관한 관심이 정치사회화의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며, 1950년대 H.Hyman의 체계적 연구 이래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정치 학습 과정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정립된 정치사회화의 다양한 개념들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정치사회화는 사회의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하여 개인이 정치에 관련이 있는 태도적 정향과 행동적 유형을 배우는 과정이다(김규봉, 2003: p.6 재인용).

ii. 정치사회화란 개인이 정치적 정향과 행동유형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한 사회의 정치사회화 과정은 그 사회의 안정과 불안정, 지속성과 변화, 대중의 정치 참여도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iii. 정치사회화란 정치 문화의 전승 내지 문화습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한 사회의 정치 문화 속으로 청소년들을 유도, 적응시키는 과정이며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가는 과정이다(김상웅, 1999: P.4 재인용).

iv. 정치사회화란 정치 학습이라는 개념이다. 정치사회화란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공식적으로 특정의 교육기관 등에 의해 정치적 지식, 가치 및 기술 등을 의도적으로 교수하는 과정이며 넓은 의미로는 한 개인이 성장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공식적, 비공식적, 의도적, 비의도적인 모든 정치적 학습을 포괄한다. 이 경우 정치사회화는 명시적인 정치학습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연관된 사회적 태도를 익히는 경우처럼 비정치적인 학습까지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전찬수, 1997: p.5 재인용).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치사회화란 정치적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하나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정치정보와 정치성향을 지니게 하여 한 나라의 정치문화를 유지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교육과정 속에서의 정치사회화

교육과정 속에서 정치사회화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며 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내의 정치사회화를 다룰 수 있는 교과는 어떠한 교과들이나 하는 문제이다. 교과과정상 국사, 문화, 도덕, 윤리, 사회과 등의 과목을 통하여 정치세계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역할, 정치제도, 정치관계, 정

치적 가치와 태도, 공공의 의무와 책임, 윤리 도덕, 문화 등에 관하여 배운다. 특히 ‘정치’ 과목은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사회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핵을 이루는 과목이다. 즉 한 국가가 그 생활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 태도 등을 포함하는 자질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더한다.

둘째, 교육에서 정치사회화의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문제와 결합되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사회화를 위한 수업이 프레이리(P. Freire)가 말한대로 일방적 의사소통 통로로 이루어지는 “은행 저축식” 교육만을 한다든지, 지배집단의 가치관만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이라면, 균형 있는 정치사회화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라는 차원에서의 정치사회화 교육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교육적 의도성을 띤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적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공식적 교육과정보다 정치사회화면에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식적 교과를 통한 지식과 사고과정의 문제는 비교적 대리적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생활을 통한 직접적 체험에 의하여 학습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3) 한국 공교육에서의 여성정치교육 현실**

여성정치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린다는 법률적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UN 헌장, UN인권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여전히 남녀의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제도 및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인식과 용기, 그리고 행동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요구를 입법화 할 수 있는 다수의 여성정치인이 필요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조직적 여성세력 성장을 위해서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그 필요성을 재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울러 사회구성원간의 평등한 권리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오늘날 시민사회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다.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가 바로 교육이며 그러므로 여성정치참여의 시발점은 여성정치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통한 여성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 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한다. 즉,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더불어 학교교육 참여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듯 지난 50여 년간 공식적 학교교육에 여성의 참여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학교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유교의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내 제 영역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학교교육의 내용,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성별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화 과정으로서 여학생이 받아들인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여성=가정/ 남성=사회·정치)에 기초하였으며, 이는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및 사회적 지위향상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들이 정치 및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방해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정치적 태도나 행동이 남성에 비해 저조한 이유 역시 초기 학교교육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정신 외, 1993). 이러한 학교의 정치교육의 문제점은 다양한 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오재림(2004)의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가의 여성정책 입안 과정에 여성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단순히 여성 국회의원 수의 부족에만 원인이 있기 보다는 학교교육을 통한 여성의 정치사회화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여성교육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남녀 평등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현실은 정치적 주체로서 여학생의 정치의식 형성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적극적 정치참여자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지양(1999)의 연구에서는 정치사회화과정의 중심으로 학교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서도 남녀에게 성차별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교육은 여학생들에게 아직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사회화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성역할 편견이 많은 부분 그대로 답습 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성(性)고정관념과 여성의 정치태도 및 행동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학교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경험에 기초한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학습되고 내면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 정치사회화와 교육 간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에 근거해서 볼 때, 정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



교 교육내용에 여전히 남녀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중에 특히,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 교육에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교과서 삽화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삽화는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내용 이해에 대한 보조 장치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Ⅲ. 정치교과서 분석 틀과 분석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97년 12월에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제7차 사회가 교육과정의 일반 사회 영역에서 심화 선택과목으로 개발된 정치교과서 4종이다. 분석은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정치활동 관련 삽화 중에서 성별구분이 가능한 삽화를 분석할 것이다. 4종의 정치교과서는 알파벳 A, B, C, D 로 표기하였다.

<표 III-1> 분석대상 정치교과서

구분기호	출판사	저자	사진·삽화의 책임자
A	대한교과서(주)	최병모 외 5인	.
B	법문사	김왕근 외 4인	전은우 외 3인
C	(주)천재교육	강세중 외 5인	정용환 외 2인
D	(주)지학사	이승중 외 4인	.

#### 1)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사용되는 주된 교재로 교사는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습지도를 하며, 학생들은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습내용을 배우게 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668호)에 의하면 교과서

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 저작물 등을 말한다(교육법전편찬위원회, 1998).

교과서는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그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도구이고, 한 국가의 공식적 이념뿐 아니라 교육목표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며, 교사의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 그리고 평가의 주된 근거의 하나가 되며, 학생들의 학습활동의 주된 자료로서 학습의 결과를 반성하고 정리하게 해준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 속에 반영된 문화적 가치 체계는 학생들의 신념과 지식 그리고 행동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채기범, 2004).

특히,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사회화 기제와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인 성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성정체감은 다양한 교육매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현교육체제의 특성 상 교과서 내의 교육내용은 학생의 성정체감 형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은경, 2000: p.5). 특히, 사회과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교과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과 동시에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선택과목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한다. 따라서 정치교과를 통해 정치참여에 있어 성불평등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성평등적인 참여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과서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2) 삽화의 기능

### (1) 삽화의 정의

삽화(illustration)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신문·잡지·서적 등의 글

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입하는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문장과 직접 연관이 있고 회화적 성격이 강한 것을 가리킨다. 정완호(1993), 강호감(1993) 등의 연구에서는 시각자료 속에 사진, 삽화(그림, 도해), 도표로 나누어 포함시키고 있으며, 권명광(1992)은 그림 속에 사진, 그림, 도해, 도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우종옥 등(1991)의 연구에서는 삽화 속에 사진, 그림은 포함시키고 있으나 도표를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삽화란 교과서의 시각자료 중 ‘사진, 그림, 도해, 만화’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사진(photograph)’은 카메라로 촬영하여 게재한 삽화를 말한다.

‘그림(picture)’은 좁은 의미로 사용하여 사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자연의 현상, 활동하는 모습 등을 그려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도해(explanatory diagram)’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설명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그림에 기호나 설명이 사용된 것을 도해로 본다.

‘만화(cartoon)’는 익살·해학·풍자 등의 내용을 과장법이나 생략법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그린 그림으로, 단순한 컷으로 표현된 인물의 그림이나 지문과 함께 그려진 인물의 익살스런 그림, 그리고 사전에 말 주머니가 들어간 것 등을 의미한다.

## (2) 삽화의 교육적 기능

삽화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많은 연구가 삽화의 교육적 기능을 지지하고 있다.

### ① 주의적 기능

삽화의 주의적 기능이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을 활성화

시켜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즉, 수업에 투입되는 삽화의 첫째 기능은 학습 내용을 뒷받침해주기 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주의집중력을 강화하여 수업을 순조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② 표현 기능

표현 기능이란 특정 내용을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는 삽화의 역할이다. 표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삽화 속에는 교과 내용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물이나 사건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삽화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설명 위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된다.

#### ③ 조직 기능

조직 기능이란 학습 내용에 일정한 구조와 일관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인데,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삽화는 여러 핵심 정보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습 내용의 구조화를 도와준다. 학생들은 일련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삽화를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 ④ 이해 기능

이해 기능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절을 이해하기 쉬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삽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시하여 준다.

### ⑤ 파지적 기능

파지적 기능은 삽화 기억이 언어 기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배경을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을 돕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삽화는 학습자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화로 표현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

### (3) 삽화분석의 이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삽화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유발은 물론이고 내용 이해의 보조 장치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서는 삽화의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차별은 드러나지 않고 미묘하게 숨겨져서 쉽게 인지되지 못한다는 성격상 교과 내용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삽화를 통해 잠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교과 내용과는 달리 집필진과 교사가 가르치기를 의도하지 않는 내용이 삽화를 통해 나타남으로써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이은경, 2000: p.29) 삽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교과서를 볼 때 내용보다는 삽화를 먼저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삽화의 시각적인 효과는 매우 크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기 쉽다.

따라서 교수-학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삽화를 통해 성차별적인 요소가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삽화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면 학습자의 정치 학습에 영향을 미쳐 미래의 정치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활동이 삽화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알

아보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교과서 4종에 나타난 삽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2. 분석준거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활동 관련 삽화 중에서 성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3가지 분석 준거로 구성된다.

첫째, 정치교과서 정치활동 관련 삽화 중에 성별 구분이 가능한 삽화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성별 구분이 가능한 삽화는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정치활동에 대해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정치활동 관련 삽화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 삽화의 비율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출판사별로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 삽화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치참여유형에 따라 교과서 4종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교과서 정치활동 관련 삽화에 나타난 성별구분이 가능한 삽화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 1) 삽화의 성별 구분 방법

정치활동 관련 삽화 중에서 참여유형에 따른 남녀의 비율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삽화에 나타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진 및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기존의 정해숙(1998) 등에 의해 수행된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분석에서의 성별 구분이 가능한 대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과 달리 삽화에서 얼굴 뒷면만 나오는 경우라도 작가가 성에 따라 인물 표현을 구분했을 경우 성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작가가 인물의 뒷모습을 치마와 바지를 입은 경우처럼 성에 따라 구별했거나, 남성을 표시하는 짧은 머리와 여성을 표시하는 긴 머리로 그렸든지, 여성을 상징하는 머리에 핀을 꽂은 뒷모습을 그렸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둘째, 수십 명이 여러 크기로 함께 나오는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모든 인물을 다 분석하지 않고 두각을 나타내는 앞줄의 인물만을 분석한다.

셋째, 인물의 상반신만 나오는 사진의 경우 성별구분이 분명하면 분석하고, 인물의 전신이 나오는 경우에 인물의 이목구비가 상반신 사진에 비해 다소 불분명 하더라도 머리모양, 넥타이, 양복, 한복 등으로 성별이 명확히 구분될 경우에는 분석한다.

넷째, 이익집단 등이 나오는 사진의 경우 이익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주변인들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다섯째, 군중의 성격이 강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나오는 사진의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토대로 정치활동 관련 삽화를 분석함으로써 성별



에 따라 정치참여유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출판사 별로 여성의 참여비율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한다.

## 2) 정치참여유형의 구분

정치참여의 형태는 주로 인습적인 것과 비인습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정치학의 이해, 2005: p.265 재인용). 인습적인 정치참여란 투표, 정치토의, 선거운동에의 참여, 정당가입 등과 같이 우리가 흔히 보는 정상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를 가리킨다. 이에 반해 비인습적 정치참여란 청원, 시위, 파업, 정치적 암살 등과 같이 정상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참여를 가리킨다.

정치참여에 대해 버바와 나이(Sidney Verba and N. H. Nie)는 ① 투표(voting) ② 선거운동(campaign activity) ③ 협동적 활동(cooperative activity) ④ 시민주도의 접촉(citizen-initiated contacts) 등으로 분류하였다. 밀브래스와 고엘(L. W. Milbrath and M. L. Goel)은 (1)능동형(active)의 ① 비인습적(unconventional) 유형인 항의자(protestors) ② 인습적(conventional) 유형인 지역활동가(community activists), 정당과 선거운동 종사자(party and campaign workers),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s), 접촉전문가(contact specialists), (2) 수동적 지원형(passive supportive)으로 투표자와 애국자(voters and patriots), (3) 무관심형(apatetic)으로 비활동가(inactive)등으로 분류하였다.

페리 등(G. Parry, G. Moyser and N. Day)은 ① 투표(voting) ② 정당활동(party campaign) ③ 집단활동(group activity) ④ 접촉(contacting) ⑤ 항의(protesting) 등으로 분류하였다.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엘리트와 일반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도이취는 엘리트를 그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핵심 엘리트 (central elite), 정상 엘리트(top elite), 중간 엘리트(mid-elite)로 구분하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장관, 국회의원 등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핵심 엘리트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위에서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정치참여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먼저, (1) 인습적인 참여형태로 ① 정치지도자, ② 이익집단의 참여, ③ 시민단체의 참여, ④ 선거운동에의 참여로 나누어 살펴본다. 핵심 엘리트에 속하는 정치지도자는 지도층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공직자)과 후보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지도층과 구성원 층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선거운동의 참여는 지지자로서 참여하는 형태와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형태로 나누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 비인습적인 참여형태인 ⑤폭력적 시위로 나누어 알아본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정치참여유형별 분석

구분	참여유형		세부내용
인습적 참여	정치지도자	지도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장관, 국회의원 등
		후보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익집단의 참여	지도자	이익집단의 대표
		구성원	이익집단의 회원
	시민단체의 참여	지도자	시민단체의 대표
		구성원	시민단체의 회원
	선거참여	지도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캠프에 참여
		투표	투표행위에 참여
비인습적 참여	폭력적 시위		폭력적 시위에 가담

3) 정치활동 관련 자료의 분석

(1) 출판사별 분석 삽화의 비중

출판사별로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정치활동 삽화의 수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성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의 수를 조사하여 그 비중을 알아본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정치활동 삽화 중에서 성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의 수를 측정하여 다음의 표의 형식에 맞추어 비중<sup>3)</sup>을 알아본다.

3) 비중도(%) = 성별구분이 가능한 삽화의 수 / 전체 정치활동 삽화의 수 × 100

<표 III-3> 출판사별 분석 삽화의 비중

출판사	정치활동 자료의 수	성별구분 가능한 자료의 수	비중(%)
A			
B			
C			
D			
소계			

**(2)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유형 분석**

분석 대상 교과서를 <표 III-2>에서 제시한 정치참여유형에 따라 남녀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래의 표의 형식에 따라 검토해 보았다.

---

(단,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표 III-4>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유형

구분	참여유형		성별		소계(수)
			남	여	
인습적 참여	정치 지도자	지도자			
		후보자			
	이익집단 참여	지도자			
		구성원			
	시민단체 참여	지도자			
		구성원			
	선거참여	지도자			
		투표			
<b>소계</b>					
비인습적 참여	폭력적 시위				
<b>소계</b>					
<b>총계</b>					

**(3) 출판사별 정치참여유형**

아래의 표와 같이, 정치참여유형에 따라 교과서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표 III-5> 출판사별 정치참여유형 분석

구분	참여유형		A	B	C	D	소계
인습적 참여	정치 지도자	지도자					
		후보자					
	이익집단 참여	지도자					
		구성원					
	시민단체 참여	지도자					
		구성원					
	선거운동 참여	지도자					
		투표					
<b>소계</b>							
비인습적 참여	폭력적 시위						
<b>소계</b>							
<b>총계</b>							

## IV. 주요 결과 및 논의

### 1. 출판사별 분석 삽화의 비중

먼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치교과서에서 정치활동 자료의 수와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의 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출판사별 정치활동 자료의 수

출판사	정치활동 자료의 수	성별구분 가능한 자료의 수	비중(%)
A	39	31	79.5%
B	84	66	78.6%
C	117	97	83%
D	97	78	80.4%
소계	337	272	80.7%

<표 IV-1>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교과서의 정치활동 자료의 수를 출판사별로 보면, C 교과서 > D 교과서 > B 교과서 > A 교과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C 교과서가 11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A 교과서가 39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C 교과서는 A 교과서의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치활동 자료의 수는 출판사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의 수도 정치활동 자료의 수가 많

있던 C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C 교과서 > D 교과서 > B 교과서 > A 교과서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전체 정치활동 자료의 수에 비례하여 성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성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의 수가 가장 많은 C 교과서는 가장 적은 A 교과서보다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율(%)을 살펴보면, C 교과서의 성별구분 가능한 자료의 수가 83%로 가장 많았지만, 가장 낮은 비율의 B 교과서와 5% 미만의 차이를 보여 그리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활동 관련 삽화 중 성별구분이 가능한 삽화는 전체의 80%정도인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성별구분이 가능한 정치활동 자료는 학생들의 정치태도 형성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다음 장에서는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를 정치참여 유형별로 분석하여, 성별에 따른 정치활동과 지위를 나타낸 삽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유형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제 7차 정치교과서 4종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는 모두 272개로, 전체 정치활동 자료 중 80.7%를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성별구분이 가능한 272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 III-2>에서 제시한 정치참여유형을 따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인습적 참여

### (1) 정치지도자

정부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정치지도층에서의 여성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부 고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참여는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국·과장 이상 간부급의 여성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단적인 예로 올해 행정고시(행정·공안직)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은 44.6%에 달하였지만, 고위 공무원층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과 비교하여 정치지도층에서의 여성 정치참여를 나타낸 삽화비율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V-2>와 같았다.

우선, 행정부에서의 여성 삽화비율은 A 교과서에서 22.2%, B 교과서에서 14.3%, C 교과서에서 19.4%, D 교과서에서 15.4%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국내의 행정부처에 속한 여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나 정상회담 등 외교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의 여성고위관료를 나타낸 삽화의 비율이다. 국내의 행정부를 나타내고 있는 삽화는 <사진 1>과 같이 모두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국가를 불문하고 행정부처에 여성지도자의 참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국내에서의 여성지도자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에서의 여성국회의원을 나타낸 삽화를 살펴보면,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D 교과서의 한 개의 삽화에서만 여성국회의원을 나타냈다. 이는 교과서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의회진출이 많이 증가하

고 있는 지금의 여건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경우는, 4종 교과서 모두에서 고위법관과 같은 지도층으로서의 여성을 나타낸 삽화는 전혀 없었다. 더욱이 <사진 3>과 같이 남성은 고위 법관으로, 여성은 속기사로 나타내고 있어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지위를 보여준다. 이는 학생들에게 남성은 지도층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반해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성역할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에 나타난 행정부, 국회, 사법부에 소속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12.3%로 남성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 정치지도층의 여성참여 삽화비율

(단위: 백분율, ( )는 수)

	A	B	C	D	소계
행정부	22.2 (2)	14.3 (3)	19.4 (7)	15.4 (4)	17.4 (16)
국회	.	.	.	9.1 (1)	2.7 (1)
사법부	.	.	.	.	.
소계	15.4 (2)	9.1 (3)	13.5 (7)	12.5 (5)	12.3 (17)



자료 ④ 국무 회의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사진1> C 교과서 161쪽



<사진2> B 교과서 34쪽



<사진3> A 교과서 125쪽

다음으로 후보자로서의 여성 삽화비율을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4종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후보자의 삽화비율은 5.9%로 남성의 비율과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교과서에서 한 개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종의 교과서에서 후보자로서의 여성의 참여를 나타낸 삽화는 전혀 없었다. <사진 4>와 <사진 5>에서처럼 후보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사진은 모두 남성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이 공직을 담당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비율에서 남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주요 공직도 남성의 영역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표 IV-3> 후보자로서의 여성참여 삽화비율

(단위: 백분율, ( )는 수)

	A	B	C	D	소계
선거참여 (후보자)	14.3 (1)	.	.	.	5.9 (1)



자료 2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이나 정견을 제시한다.



<사진4> C 교과서 78쪽

<사진5> B 교과서 145쪽

(2) 이익집단의 참여

이익집단에 참여하는 여성의 삽화비율을 살펴본 결과, <표 IV-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정치교과서 4종 모두에서 여성을 지도자로 묘사한 삽화가 없어 남성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반면 구성원 층에서는 여성 관련 삽화의 비율이 35.7%로 지도층에 비해 그 차이가 현저히 줄었다. 출판사별로는, B 교과서에서 한 개의 삽화에서도 묘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

면, A 교과서에서 33.3%, C 교과서에서 40%, D 교과서에서 50%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의 대표자는 남성의 몫이며, 여성은 구성원 수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지위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표 IV-4> 이익집단의 여성참여 삽화비율

(단위: 백분율, ( )는 수)

		A	B	C	D	소계
이익집단	지도층	.	.	.	.	.
	구성원	33.3 (1)	.	40 (2)	50 (2)	35.7 (5)
소계		25 (1)	.	18.2 (2)	40 (2)	20 (5)



자료 ① 노사 협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 생활의 원리이다.

<사진6> C 교과서 24쪽

또한 이익집단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한다. 그 중에서 정치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표 IV-5>에서는 이익집단 구성원 중 여성이 정치집회에 참여한 삽화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여성이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사진은 B 교과서와 C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A 교과서와 D 교과서에서 각각 33.3%, 50%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집회참여 삽화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A 교과서와 D 교과서의 공통점은 여성의 집회참여 비율과 집단의 구성원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이익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이 모두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집회에 가담하는 자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V-5> 이익집단 여성의 집회참여 삽화비율

(단위: 백분율, ( )는 수)

	A	B	C	D	소계
정치집회	33.3 (1)	.	.	50 (2)	33.3 (3)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

<사진7> D 교과서 87쪽



자료 ⑨ 텔레비전 출연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연예인 협회 회원들

<사진8> C 교과서 98쪽

### (3) 시민단체의 참여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지도층에서의 여성 삽화비율은 27%로 나타나 시민단체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도층은 남성의 영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구성원 층을 살펴보면 A 교과서에서는 53.8%, B 교과서는 59.1%로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으며, C 교과서는 45.7%, D 교과서는 38.4%로 나타났다. 4종 교과서에 나타난 구성원의 여성 삽화비율은 평균 46.2%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이루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보다는 봉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여성은 정치적 성향이 열으며 주도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정치 참여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IV-6> 시민단체의 여성참여 삽화비율

(단위: 백분율, ( )는 수)

		A	B	C	D	소계
시민단체	지도층	.	33.3 (4)	23.1 (3)	25 (3)	27 (10)
	구성원	53.8 (7)	59.1 (9)	45.7 (16)	38.5 (10)	46.2 (42)
소계		53.8 (7)	44.8 (13)	39.6 (19)	34.2 (13)	40.6 (52)



<사진9> B 교과서 27쪽



① 시민 단체의 활동 | 교과서 254쪽 |

<사진10> C 교과서 254쪽



세계 NGO 대회(1999, 서울) 전 세계의 시민 단체 대표들이 모여 지구촌 문제에 대한 대토론을 벌였다.

<사진11> B 교과서 256쪽

다음으로 <표 IV-7>에서는 시민단체 여성이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삽화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여성이 집회에 참여하는 삽화비율은 36.8%로 남성에게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A 교과서와 B 교과서에서는 각각 50%와 55.6%로 남성의 삽화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의 집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삽화를 분석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회 참여는 물론이고 <사진 12>와 같이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시민단체 여성의 집회참여 삽화비율

(단위: 백분율, ( )는 수)

	A	B	C	D	소계
정치집회	50 (2)	55.6 (5)	30.8 (4)	25 (3)	36.8 (14)



국회 의사당 앞에서 모성 보호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여성 단체 회원들

<사진12> B 교과서 62쪽

(4) 선거운동 참여

선거에 참여하는 유형을 지도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수동적인 참여형태인 투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도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삽화비율은 <표 IV-8>에서 보듯이 35.7%로 남성의 비율과 약 1.8배 정도 차이가 났다. <표 IV-3>에서 제시된 후보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삽화비율과 비교해 본다면 비율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남성은 정치지

도자 수준의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후보자를 지지하는 보조적 역할로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8> 지도자로서 여성참여 삽화비율

(단위: 백분율, ( )는 수)

	A	B	C	D	소계
선거참여 (지도자)	33.3 (1)	25 (1)	50 (2)	33.3 (1)	35.7 (5)



대통령 당선 확정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사진13> C 교과서 82쪽

다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삽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A 교과서와 C 교과서, D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삽화비율이 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B 교과서에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66.7%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삽화비율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회나 공직에 진출하는 상위직에 비해 투표행위를 나타낸 삽화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자칫하면 여성의 정치활동을 투표행위로만 국한짓는 경향이 있으며, 일상적인 참여형태인 투표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이미지로 전달될 수

있다.

<표 IV-9> 투표에서의 여성참여 삽화비율

(단위: 백분율, ( )는 수)

	A	B	C	D	소계
투표	50 (1)	66.7 (2)	50 (2)	50 (3)	53.3 (8)



자료 II-3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14> A 교과서 73쪽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정치를 맡긴다.

<사진15> D 교과서 46쪽

## 2) 비인습적 참여

### (1) 폭력적 시위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고 이

행해야 하지만 폭력적 시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주장만 내세우거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인습적 참여형태에 비해 비인습적 참여형태인 폭력시위에 참여하는 여성의 삽화비율이 높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여성은 이기적이며 비민주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폭력적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의 삽화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이 나타났다. 정치교과서 4종에서 총 4개의 폭력시위 관련 삽화가 있었으나, 이 중에서 여성이 폭력시위에 참여하는 삽화는 없었다. 따라서 정치교과서 내에서 여성을 비합법적인 정치활동의 주체로 묘사하고 있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표 IV-10> 폭력시위에 참여하는 여성 삽화비율

(단위: 백분율, ( )는 수)

	A	B	C	D	소계
폭력적 시위	.	.	.	.	.



<사진16> B 교과서 75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참여유형별로 성별에 따른 참여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1>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크게 인습적 참여와 비인습적 참여의 비율을 나누어 살펴보면, 인습적 참여의 경우 남성의 정치활동 삽화 비율이 73.9%, 여성은 26.1%로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인습적 참여는 폭력적 시위에 참여한 삽화의 등장인물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인습적 참여와 비인습적 참여의 정치활동을 나타낸 삽화의 비율은 남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학생 특히 여학생들에게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참여 유형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정치지도층에서는 여성의 삽화비율이 12.3%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후보자의 삽화비율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지도자를 나타낸 삽화는 대부분이 남성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구성원 층에서는 남성과의 비율차이가 지도층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났다. 또한 지지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형태에서는 남성 삽화비율이 64.3%, 여성이 35.7%로 나타났다. 선거운동과 같이 활동적인 참여형태에서는 남성의 삽화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투표와 같이 수동적인 참여형태라는 점에서 여성의 삽화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단체나 선거참여에서의 남녀 삽화의 비율차이보다 정치지도자와 같은 지도층에서 남녀의 삽화비율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참여자 수준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IV-11>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비율

(단위: 백분율(%), 표에 나타난 백분율은 여성의 비율을 말함, ( )는 수)

구분	참여유형		성별		소계(수)	
			남	여		
인습적 참여	정치 지도자	지도자	87.7(121)	12.3(17)	138	
		후보자	94.1(16)	5.9(1)	17	
	이익집단 참여	지도자	100(11)	.	11	
		구성원	64.3(9)	35.7(5)	14	
	시민단체 참여	지도자	73(27)	27(10)	37	
		구성원	53.8(49)	46.2(42)	91	
	선거참여	지도자	64.3(9)	35.7(5)	14	
		투표	46.7(7)	53.3(8)	15	
	<b>소계</b>			<b>73.9(249)</b>	<b>26.1(88)</b>	<b>337</b>
	비인습적 참여	폭력적 시위		100(4)	.	4
<b>소계</b>			<b>100(4)</b>	<b>.</b>	<b>4</b>	
<b>총계</b>			<b>74.2(253)</b>	<b>25.8(88)</b>	<b>341</b>	

### 3. 출판사별 정치참여유형

정치교과서 정치활동 삽화 중 성별구분이 가능한 삽화 자료는 교과서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치참여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IV-12>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치참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정치지도자에서는 지도층과 후보층 모두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층의 경우, A 교과서에서 한 개의 사진에서만 여성을 후보자로 묘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익집단의 경우는 지도층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나타낸 삽화가 전혀 없었으나, 구성원 층에서는 B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참여를 살펴보면, 지도층에서는 A 교과서에서는 관련 삽화가 전혀 없었으며, 나머지 B 교과서 33.3%, C 교과서 23.1%, D 교과서 25%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성원 층에서는 A 교과서에서 53.8%와 B 교과서에서 59.1%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교과서와 D 교과서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적어, 전체적으로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경우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도층은 남성의 영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지지층의 경우 A 교과서와 D 교과서는 33.3%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B 교과서에서는 25%의 비율로 나타나 여성의 비율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50%로,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삽화를 분석한 결과 A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에서는 남성과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B 교과서에서만 66.7%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인습적 참여의 형태인 폭력적 시

위를 살펴보면, 4종 교과서 모두에서 여성이 직접적으로 폭력적 시위에 가담하는 삽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교과서 4종을 정치참여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종 교과서 모두에서 참여유형별로 등장하는 여성의 비율은 A 교과서 31%, B 교과서 24.1%, C 교과서 25.8%, D 교과 25%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나 구성원층에 비해 지도자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이 4종 교과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떠한 교과서를 접하든지 학교 교육을 통한 여성의 정치사회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여학생의 정치의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IV-12> 출판사별 정치참여비율

(단위: 백분율(%), 표에 나타난 %는 여성의 비율을 말함, ( )는 수)

구분	참여유형		A	B	C	D	소계	
인습적 참여	정치 지도자	지도자	15.4(2)	9.1(3)	13.5(7)	12.5(5)	12.3(17)	
		후보자	14.3(1)	.	.	.	5.9(1)	
	이익집단 참여	지도자	.	.	.	.	.	
		구성원	33.3(1)	.	40(2)	50(2)	35.7(5)	
	시민단체 참여	지도자	.	33.3(4)	23.1(3)	25(3)	27(10)	
		구성원	53.8(7)	59.1(9)	45.7(16)	38.5(10)	46.2(42)	
	선거운동 참여	지도자	33.3(1)	25(1)	50(2)	33.3(1)	35.7(5)	
		투표	50(1)	66.7(2)	50(2)	50(3)	53.3(8)	
	<b>소계</b>			<b>31(13)</b>	<b>24.7(19)</b>	<b>26.2(32)</b>	<b>25(24)</b>	<b>26.1(88)</b>
	비인습적 참여	폭력적 시위		.	.	.	.	.
<b>소계</b>			.	.	.	.	.	
<b>총계</b>			<b>31(13)</b>	<b>24.1(19)</b>	<b>25.8(32)</b>	<b>25(24)</b>	<b>25.8(88)</b>	

#### 4.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활동을 살펴본 결과, 지위 측면에서는 남성이 높게 나타난 삽화의 비율이 높았으며, 참여활동 측면에서도 남성은 주도적인데 반해 여성은 소극적이며 비주도적인 삽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지도층의 참여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나타난 삽화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구성원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투표와 같이 소극적인 참여활동을 나타낸 삽화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교과서 4종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떤 정치교과서를 접하든지 간에 학생들은 성불평등적인 삽화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하며, 특히 지도자 수준에서의 여성 참여가 낮은 원인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은 교육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소극적인 참여는 교육을 통한 정치사회화 과정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 현실은 정치적 주체로서 여성의 정치의식 형성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자로 성장하는데도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남녀평등하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삽화와 같이 암묵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 1. 분석결과의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교과서 정치활동 관련 삽화 중, 성별구분이 가능한 삽화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별 정치활동 관련 삽화 수와 그 중에서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 수를 조사하고, 전체 정치활동 자료의 수에 비례한 성별구분이 가능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의 비율은 출판사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그 비율차이는 5% 미만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남녀의 정치참여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정치활동 관련 삽화 341개 중, 남성의 비율이 74.2%, 여성의 비율이 25.8%로 남성이 정치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과 같이 핵심 엘리트층에 속하는 정치지도자 수준에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12.3%로 남성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도 남성의 비율이 94.1%로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익집단에서의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지도층의 경우 여성을 나타내고 있는 삽화는 정치교과서 4종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구성원 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35.7%로 지도층에 비해 그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익단체 구성원으로 나타난 여성의 자료 중에서 대부분이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은 시위에 가담하는 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의 참여를 살펴보면 지도층에서는 여성비율이 27%로 나타났으며, 구성원 층에서는 46.2%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도층에 비해

구성원 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은 정치 참여에 있어 보조적인 수준이며 남성에 비해 정치적 지위가 낮음을 의미한다. 선거참여의 형태를 지지자로서 참여하는 유형과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지지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유형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이 35.7%로, 이는 활동적인 참여형태인 선거운동에서도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유형에서는 그 차이가 적긴 하지만 여성의 비율이 53.3%로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와 같이 상위직에서의 여성 삽화비율은 저조하게 나타난 반면 투표행위에서 여성의 삽화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은 투표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여성의 정치활동을 투표행위로만 국한시키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비인습적인 참여형태인 폭력적 시위에 대한 삽화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직접적으로 폭력적 시위에 가담하는 삽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교과서 4종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모든 교과서에서 남성을 주도적이며 지도층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은 구성원과 같이 보조적이며 소극적인 참여형태로 더 많이 묘사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든지 간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더 낮으며, 정치참여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사회과 교육의 핵심 영역 중의 하나인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치참여에 있어서 남녀 차별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올바른 정치 사회화를 이루고, 남녀 평등적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활동 관련 삽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 2. 시사점 및 제언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정치사회화 부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중요한 자질로서 합리성과 자발성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이익 입장과 견해를 표현하고, 정치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투표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 참여 행동을 하는 정치적 기능을 학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성평등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 교육을 통해 오히려 정치 과정에서의 남녀 평등적이며 자발적인 참여가 방해받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이론들을 토대로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정치활동 관련 삽화 중에서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교과서 4종을 분석하여 출판사별로는 정치참여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8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정치교과서에서 정치활동 관련 삽화를 보다 성평등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수정·보완하면 좋은지를 생각해 보았다. 정치교과서 정치활동 삽화에 나타난 성별구분이 가능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언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을 정치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역할모델

이 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혹은 여성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삽화의 비율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 상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삽화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도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교과서에서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도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며,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 합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때, 교과서 상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과 같이 정치지도층은 물론이고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지도층에서도 남성의 삽화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사회적 제도 개선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여성 장관은 물론이고 정당 대표자로서의 여성도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교과서에서 대변해주지 못함으로써 여성은 여전히 낮은 정치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불평등한 성역할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상에 남녀 평등한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이끌어내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지위 또한 남성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기에 형성되는 사회화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교과서 4종에 나타난 정치활동 관련 삽화의 대부분이 남성을 주도적이며 지도층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역할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는 정치교과서가 청소년기의 정치 사회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치적 가치관과 태도를 심

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정치활동 관련 자료들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의 모든 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남녀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 중심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요즘에 와서는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에서만큼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잘못된 관습과 관행들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해 남녀의 평등한 성역할을 길러주어 학생들이 평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8차 사회과 교육과정 정치교과서에서는 성역할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암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삽화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학교현장의 노력으로 인해 정치는 더 이상 남성들만의 영역이 아니며, 여성들도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와 지위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근숙(2001).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실태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호(2005). 고등학교 사회 「정치생활과 국가」 단원에 나타난 성차별 내용 분석.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
- 김규봉(2003). 중학교 교과과정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웅(1990). 초등학교 아동들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왕근 외(2003).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서울: 범문사
- 김지양(1999).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우(2005). 제7차 교육과정 과학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고정적 표현에 대한 여학생들의 의식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경은(2005). 양성평등 교육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내용분석.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03).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삽화 자료에 대한 분석: 세계사 영역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난희(1997). 학교교육의 성역할 재생산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범윤경(1998). 학교교육과 성평등의 관련 탐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2005).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소광희(2002).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희정(2003).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한국과 미국 사회 교과서 비교.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경희(2003).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및 향후 과제. 『여성정책논집』, 제3권, pp.77-92

오재림(2004).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여성 정치참여와 여성교육 및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1호, pp.107-147.

유명철(2004).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 사회 교과서의 정치 사회화 내용요소 분석. 중등교육연구, pp.237-252.

이극찬(2004). 『정치학』. 서울: 법문사.

이승중 외(2003).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서울: (주) 지학사.

이은경(2000). 사회과교육에 있어서의 성역할 내용 분석: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득주 (외)공저(2004).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유평출판사.

전용환 외(2003).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서울: (주) 천재교육.

전찬수(1997). 정치사회화를 위한 사회과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이(2002).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숙(1998).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조현옥(2003). 여성의 정치적 역량 기르기 방법론. 여성연구논총, pp.23-40.
- 채기범(2004).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삽화의 양성 평등 적합성 분석.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모 외(2003).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
- 최정윤(1999). 성평등적인 사회과 학습자료가 학생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교육 제3집, pp.139-176.
- 최정윤(2006). 사회과 교육에서 성차별적 태도의 재생산 메카니즘 분석: 10학년 「사회」 교과서의 집필자, 교과서 내용, 학생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한명희(1989). 교육에서의 여성과 정치사회화. 아세아여성연구, pp 42-58.
- 한정신, 박임전, 김영희, 김영란, 오재림(1993). 여성의 정치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pp.169-212.
- 홍득표(2004). 『현대 정치과정의 이해』. 서울: 학문사.
- Byron G. Massialas, *Education and Political System* (Mass : Addison-Wesely Publishing Co.,1969), pp 20-21.
- David E. Campbell, Christina Wolcrecht(2005). See Jane Run: *Women Politicians as Role Models for Adolescents*. University of Notre Dame.
- Fred I. Greenstein, : "*Political Socializ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14 (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1968), p.551.

- David F. Roth and Frank L. Wilson,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s*(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6), p.1593
- Parry, Geraint, George Moyser and Neil Day(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43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pp. 52-53

## **ABSTRACT**

### **Analysis on Woman's Political Activity in Illustrations in high school Politics Textbook**

Yu, Soo-Kyung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 am focusing on analyzing women's political contributions in textbook illustration. Even though women's social statu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has improved, it is still unsatisfactory, especially in a field like public service or other elite groups. There are many reasons which have a negative effect on more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on, such as the perceived notion of sex that has been embedded in our society. Especially, as recent analysis has proved, the textbook in our education system is the main factor of all. However, the issues like sexual role-play or discrimination are so extremely critical that they are usually under the surface. For this reason, I will only examine textbook illustrations, which depict political activity that is potentially influential to students. Moreover, I will concentrate on gender issues in these

illustrations and how they differentiate gender roles in politics.

First of all, statistics show that approximately 5% of illustrations make clear gender distinctions in textbook publications. Secondly, women make up 25.8% and men make up 74.2% in all political illustrations depicting gender. Thirdly, having studying four textbooks, they all portray similar percentages. There are far more images of men than women politicians like presidents, congressmen, senators, and judges. In fact, there are eight times more men. Also, even in illustrations that describe presidential or congressional candidates, most images are male. This is sixteen times higher than the number of images of women.

When we look at the participation in this Interest group, illustrations show images of men in all four textbooks, but there isn't much difference in the images of members of this group, which appear to have 1.8 more image of men than women. Fourth, in social organization, even though men appear about three times more than women in a leader's group, there is less of a gap in the member's group whose images of women comprise 46.2% of the genders. In addition, the images of the members of the election campaign show that 64.3% are male and 35.7% are female. On the other hand, illustrations of the actual voting process show images of women comprise 53.3% of the participants. Finally, there are only four illustrations that depict violent demonstrations in all four textbooks and no images of women in them.

Three important points can be made:

First, seeing more images of men's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might give students a biased impression that politics is more for men than wom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d more illustrations that represent women's political activity.

Secondly, it seems that there are more images of women at the election itself and in member groups in social organization. This might convey negative images of women as passive. For this reason, related illustrations need to be corrected.

Thirdly, illustrations in all four textbooks clearly show that women have a lower status and are passive participants in politics. The concern here is that this will potentially create invisible discrimination towards women in student minds. Therefore, illustrations that contain inadequate contexts regarding this issue should be immediately omitted and fixed.